가정예배 안내서

3

1995

충현의 만나

창세기

대한예수교장로회 충현교회

3

1995

가정예배 안내서

충현의 만나

창세기

대한예수교
장로회 충현교회

기 도 제 목

1.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성취되는 새해가 되도록
2. 김창인 원로목사님과 당회장 신성종 목사님의 건강과 영력 넘치는 사역을 위하여
3. 모든 교역자들과 당회원들의 성령 충만을 위하여
4. 구역예배가 살아 움직이고 구역 조직을 통하여 교구가 성장하고 교회가 부흥되도록
5. 교회 모든 위원회와 부서들의 질적, 영적 부흥과 성장을 위하여
6. 민족 복음화와 복음으로 인한 남북통일이 속히 이루어지도록
7. 나라와 민족과 교단과 대통령을 비롯한 위정자들을 위하여

충현의 만나

1995년 3월

「충현의 만나」는 성도들의 가정예배를 돕기 위해
충현교회가 매달 발간하는 간행물입니다.

창세기 서론

창세기의 명칭은 '그 대략의 책' 이란 말에서 왔다. 그것은 창세기의 일부분의 제목에서 온 것이다. 유대인들은 '태초에' 라고 부르기도 했다. 이 책의 목적은 구속사의 시작을 찾아내려는 데 있다. 또한 그 문체에 있어 운문이 아닌 산문체로 쓰여진 것은 역사적 기록임을 입증하는 것이다.

중심적인 메시지는 '어떤 상황에서의 실패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기대할 수 있다' 라는 것이다. 우리는 창세기를 통하여 인간의 실패를 볼 수 있다. 그리고 이 모든 실패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넘쳤던 것을 보게 된다.

그래서 성경 중 사탄이 가장 싫어하는 두 권의 책이 있는데 하나는 창세기요 다른 하나는 계시록이다. 그 이유는 창세기가 사탄의 유혹과 멸망에 대해서 예언되어 있고, 계시록도 사탄의 일들을 자세하게 기록해놓았기 때문이다.

우리는 창세기를 통해 모든 상황에서 실패한 인간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찾아오신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 한 달 동안 가정예배를 통해 날마다 하나님을 만나는 복된 가정이 되자.

1 (수) 편애적 사랑

찬송 / 305장　본문 / 창 28:1-9

『전능하신 하나님이 네게 복을 주어 너로 생육하고 번성케 하사』(28:3)

본문은 자녀에 대한 편애가 어떠한 결과를 가지고 오는 것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외적으로는 결혼을 위하여 야곱이 외삼촌 집으로 가는 것으로 되어있으나 실제적으로는 장자권을 빼앗긴 에서가 한을 품고 동생을 죽이겠다는 말에 야곱을 피신 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이것을 보고 있던 에서는 부모의 일방적인 사랑을 받는 야곱을 부러워했습니다. 자신에게도 결혼에 대하여 말씀해주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결혼에 대하여 아무 말씀도 없는 부모님의 편파적인 사랑에 반항적으로 부모님이 원하지 않는 결혼상대를 구하였습니다.

우리는 자녀에 대한 편파적인 사랑이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초래하는 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편파적인 사랑은 형제들의 사이를 벌어지게 했습니다. 심지어 자녀의 마음에 한을 품게 했습니다.

누가 이러한 편파적인 사랑을 온전하게 회복시킬 수 있습니까? 오랜 세월이 지난 후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는 얍복강가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부모도, 형제도 할 수 없는 일을 행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기도를 통하여 극적으로 형제의 사랑을 회복시키셨습니다. 우리는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결코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모든 것을 온전케 합니다. 우리는 다시한번 우리 가정에 이러한 편파적인 사랑이 있지나 않은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 기도 /우리 가정에 공평하시고 온전한 하나님의 사랑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부모로써 자녀의 마음속에 한을 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땅끝의 모든 민족들이 호산나 주를 찬양하는 날을 바라보며 승리의 깃발을 세우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야곱의 서원 (목) 2

찬송 / 483장 본문 / 창 28:10-22

『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도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28:16)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곳은 어디이며 언제입니까?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을 만날 곳을 한정하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러한 우리들의 통념을 깨뜨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곳은 광야일 수도 있고, 잠자는 시간에 하나님을 만날 수도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형의 복수를 피하여 도망하는 중에 허허벌판에서 잠을 자게 되었습니다. 그는 이곳에서 하나님을 처음으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그는 하나님께서 일찌기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첫째는 네가 누운 땅을 주시겠다는 것이요, 둘째는 네 자손이 티끌같이 많아질 것이요, 셋째는 너로 인하여 모든 족속들이 복을 받을 것이라는 약속이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야곱에게 허락하신 약속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놀라운 축복을 받고서 그곳을 벧엘, 곧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곳에서 확신에 찬 믿음과 감사의 마음으로 서원 기도를 드렸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벧엘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확신에 찬 믿음과 뜨거운 감사로 하나님 앞에 서원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바로 그곳이 우리 하나님의 집이 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 앞에서 서원기도한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네가 하나님께 서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게 말라 하나님은 우매자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서원한 것을 갚으라"(전 5:4)

▶ 기도 / 오늘도 우리에게 벧엘의 장소를 주시므로 확신에 찬 믿음과 뜨거운 감사로 살게 하소서. 김창인 원로목사님의 사역을 통하여 묵은 땅과 같던 심령들이 새로워지도록 역사하소서.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3 (금) 구원의 최종단계인 영화

찬송 / 142장 본문 / 빌 4:17-21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 "(4:21)

영화란 구원의 모든 과정이 완성되는 단계를 말합니다. 나를 하나님의 원하시는 수준까지 성장시키고, 영화롭게 만드시는 것은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성도의 영화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소극적인 단계로서 죄의 세력과 부패로부터 해방되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적극적인 단계로서 천국의 영원한 행복에 들어가는 것을 말하며, 천국에서 예수님처럼 온전히 영화로운 몸으로 변형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언제 영화롭게 됩니까? 성도가 죽을 때에 그 영혼은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즉각적으로 죄의 세력에서 완전히 해방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영원한 행복을 누리게 됩니다. 따라서 첫번째 영화는 죽을 때에 옵니다. 그러나 육체는 무덤에 남아 잠자고 있다가 예수님이 천사장의 나팔소리와 함께 재림하실 때에 부활하여 썩지 아니하는 몸, 즉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하여 영광스러운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살전 4:13-18). 영광스럽게 된 이 부활의 몸은 시간과 공간의 지배를 받지 않습니다. 현재의 우리의 육체는 이 땅에서 살기에 알맞도록 만들어진 몸이기 때문에 천국에서는 부적합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육체는 천국에서 살기에 알맞도록 만들어져야 합니다. 그 몸은 바로 영화롭게 부활된 거룩한 육체입니다. 우리가 기억할 것은 구원의 최종 단계에 주어지는 영광스러운 부활은 이 세상의 그 어떤 영광과도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환난 중에도 이 영광스러운 부활을 소망으로 삼고 날마다 기쁨으로 살아가는 충현의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 기도 / 충현의 성도들이 주의 재림과 더불어 영화로운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날마다 살아가게 하소서. 이 복음을 중심으로 구역 모임이 활성화되게 하소서. 당회장 신성종 목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채우시고 말씀의 능력을 칠 배나 더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야곱의 결혼 (토) 4

찬송 / 359장 본문 / 창 29:1-20

『 그를 연애하는 까닭에 칠년을 수일같이 여겼더라 』(29:20)

타향에서 맺어진 야곱의 사랑을 본문에서 보게 됩니다. 라헬을 향한 그의 사랑은 한편의 드라마입니다. 이 실제적인 드라마를 통하여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교훈받을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지녀야 할 사랑의 태도입니다.

먼저는 대가를 지불하는 사랑입니다. 야곱은 사랑하는 여인을 얻기 위하여 비싼 대가를 지불하였습니다. 오늘날의 사랑은 어떻습니까? 대가없는 성급하고 이기적인 사랑이 난무합니다. 쉽게 사랑을 얻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사랑이라는 선물을 소중하게 여겨야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위해 어떠한 대가라도 지불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에게서 이러한 사랑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를 사랑한다는 단 한 가지 이유로 인해 당신의 몸을 찢기우신 주님을 보십시오.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그 사랑, 그것은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신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받은 우리가 또한 그렇게 사랑하여야 합니다. 다음으로 변함없는 사랑입니다. 야곱은 변함없는 사랑을 하였습니다. 라헬 한 여인을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사랑을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하셨습니다. 주님은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했고 또 사랑하십니다.

우리는 야곱의 아름다운 사랑을 통하여 성도로써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사랑을 할 것인가를 배울 수 있습니다. 그것은 대가를 지불하는 사랑이요, 변함없는 사랑입니다. 이러한 사랑을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내면서 사는 성도들이 됩시다.

▶ 기도 / 대가를 지불하는 사랑을 하며 변함없는 사랑을 하면서 살게 하옵소서. 충현의 성도들이 처음 사랑을 회복하고 갈보리 언덕까지 주님을 따르는 십자가 정병들이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5 (주일) 심는 대로 거둔다

찬송 / 260장　본문 / 창 29:21-35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께 봉사하지 아니하였나이까 ……』(29:25)

야곱은 수고의 대가로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신방에 들어가니 라헬이 아니라 레아였습니다. 결국 야곱은 그 지방의 풍습을 좇아서 다시 7년을 일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이와 결혼을 하기 위하여 14년이란 세월을 봉사하게 되었습니다.

본문은 우리에게 몇 가지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심는 대로 거둔다는 것입니다. 부친과 형을 속여 장자의 축복을 받고 도망나온 야곱이 처음으로 당하는 속임수입니다. 이러한 고통을 통하여 야곱은 심는 대로 거둔다는 삶의 진실을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표면적으로 느낄 수 있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내면에는 이러한 고통을 통하여 야곱은 이스라엘 12지파의 조상이 될 자로서 많은 시련과 고난을 통해 그의 성품과 인격 및 신앙을 변화시키려는 하나님의 섭리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레아를 통하여 메시야 족보를 형성하시려는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가 깃들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볼때 하나님의 구원섭리는 사람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주권에 있음을 깨닫게 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역사를 우리속에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때로는 우리들의 고집과 속임수 등을 통하여 세상이 우리 마음대로 돌아가는 것처럼 보이고 하나님의 구원사역이 종종 끊어지는 듯이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모든 것을 아시고, 그속에서도 끊임없이 당신의 구원사역을 이루어가십니다.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속에 계심을 믿고 살아갑시다(갈 6:7).

▶ 기도 /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살게 하시고 심는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게 하옵소서. 모든 교역자들에게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은 새롭고 강건함을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월) 6

찬송 / 217장 본문 / 창 30:1-24

「 그대로 성태치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 」(30:2)

본문에서는 야곱의 흐려진 영성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기었다는 증거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았던 야곱입니다. 풍성한 영성이 그에게 있을 때에는 이처럼 하나님과 만남이 있었고 하나님과 씨름도 하였던 자였습니다. 그러나 본문에 나타난 야곱에게서는 그 풍성한 영성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자녀를 생산하기 위하여서 야곱의 가정에 이상한 일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레아와 라헬의 시기심으로 인하여 나타나는 이상한 일들을 그저 받아드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레아와 라헬이 서로 남편과 동침하고자 물질을 주고 받고 하는 행위가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것을 보고서 야곱은 아무런 이야기를 하지 않고 그저 따라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야곱의 무디어진 영적 상태를 보여줍니다. 정상적인 가정에서 결코 찾아볼 수 없는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구원역사를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결코 생명의 잉태가 사람들의 계획으로 인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인하여 이루어짐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태의 문을 여심으로 자녀를 잉태하게 되었다고 말씀합니다(22, 23절).

우리는 본문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가정이 어떠한 가정인가를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가정이 성결하게 이루어지기를 원하십니다. 하지만 야곱의 가정과 같이 갈등과 불화가 있는 가정이라도 하나님께서 섭리하심으로 은총을 얻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기를 원합시다.

▶ 기도 / 우리의 가정을 성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바 되어 살아가게 하소서. 모든 당회원들이 주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있는 곳에서 하나님을 드러내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7 (화) 거부가 된 야곱

찬송 / 447장 본문 / 창 30:25-43

『나는 어느 때에나 내 집을 세우리이까』(30:30)

오늘 본문은 14년 동안 라반을 위하여 봉사한 야곱이 고향 집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의지를 피력하였습니다. 이를 만류하기 위하여 라반이 야곱의 노동에 대해 품삯을 지불키로 계약했습니다. 계약내용은 야곱이 맡아 돌보는 라반의 양떼나 염소떼 중 앞으로 점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 태어날 경우 그 염소나 양은 야곱의 소유가 된다는 조건부 비율분배 방식이었습니다.

이러한 계약을 한 야곱은 방법을 총동원하여 자신의 소유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야곱은 심히 번성케 되었습니다. 외적인 현상을 볼 때 야곱의 재주가 비상한 것같이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사실은 불리한 계약조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이 번성할 수 있었던 요인은 벧엘언약에 근거하여 야곱에게 도움의 손길을 베푸신 하나님의 축복때문이었습니다. 야곱의 방법이 인위적이고 어리석은 방법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방법에 까지 축복하사 선한 결과가 나타나도록 섭리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야곱과 후손에게 재산의 번성을 축복하심은 택한 백성 야곱을 하란땅 라반에게서 이끌어내어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돌아가도록 하려는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함이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뜻은 이미 벧엘언약에서 분명히 계시된 바 있었습니다. 결국 언약백성의 삶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그 언약을 좇아 마침내 언약을 이루는 복된 삶입니다. 끝까지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늘을 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상의 부요함도 허락하실 것입니다.

▶ 기도 /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언약을 좇아 사는 복된 삶을 살게 하옵소서. 교회의 직원들이 살아 계신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며 섬기는 기쁨을 누리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벧엘 하나님 (수) 8

찬송 / 465장 본문 / 창 31:1-16

'그러할지라도 내 아버지의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느니라.'(31:5)

하나님의 은총이 언약의 족장들에게 얼마나 넘쳤는지 본문에서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야곱은 늘 그 아버지로부터 받은 신앙의 유산을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과거 벧엘에서 야곱은 믿음으로 하나님께 돌단을 쌓고 서원하였습니다. 또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는 시련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은혜로 그의 마음을 붙잡아 주셨습니다. 그가 이제는 20여년에 걸친 고된 객지생활을 끝내고 새로운 축복의 행로를 열어야 할 때가 왔습니다. 야곱은 귀향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이 변화의 시기에 야곱은 은혜로우신 하나님을 든든히 신뢰하였습니다. 그는 라반의 안색이 전과 같지 않은 것을 보았지만 이때 나타나사 귀향을 명령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서 담대히 순종하였습니다. "그러할지라도 내 아버지의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느니라" 야곱의 이 말은 그의 신앙고백입니다. 라반이 그를 속이고 괴롭혔어도 라반을 금하여 야곱을 해하지 못하게 하신 이는 하나님이셨다는 것입니다. 라반의 짐승을 빼앗아 야곱에게 주신 이도 하나님이셨다는 고백입니다. 그 하나님은 야곱에게 자신을 "벧엘 하나님"이시라고 밝히십니다.

은혜의 장소 벧엘에서 예배를 받으시던 하나님께서 신앙의 예배자 야곱을 잊지 않으시고 고생과 연단 중에서도 같이 하시며 더 나은 약속의 장소를 제시하십니다. 하나님은 이같은 예배자를 오늘도 찾으시고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복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때 우리 이름을 영원히 기억하시고 썩지 않는 기업을 주실 것입니다.

▶ 기도 / 어려운 시간 중에서도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자가 되게 하소서. 교회의 일꾼들이 각자 자기의 일하는 대로 자기의 상을 받는다 하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충성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9 (목) 위기 속에 나타난 인자하심

찬송 / 342장 본문 / 창 31:17-42

『 하나님이 나의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감찰하시고 』(31:42)

야곱은 그 조상 아브라함이 출본토(出本土)하였듯이, 또한 그의 후손인 모세가 출애굽한 것처럼 이제 친히 내리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죄와 우상의 도시를 떠나서 언약이 있는 곳으로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평소 라반의 인간됨으로 보아 깨끗한 작별을 기대할 수 없었던 야곱은 처자들과 소유물을 이끌고 몰래 가만히 떠났습니다. 사흘 후에 이 일을 안 라반은 일주일을 추격하여 길르앗 산에서 장막을 친 야곱을 만났습니다. 라반에게는 야곱 일행을 공격하고 나포할 힘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도 은혜로우신 하나님은 라반에게 밤에 현몽으로 경고하사 야곱을 해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야곱이 추격자 외삼촌 라반에게 한 항변은 은총과 신앙이 흐르고 있는 충성의 간증입니다. 야곱의 일생에서 그의 외삼촌 라반 집에서 겪은 고난과 연단은 매우 인상적입니다. 일찌기 야곱이 브엘세바를 떠나 800km나 떨어진 이곳 외가 하란 땅 밧단아람까지 단신으로 도망해 나온 후 그는 많은 시련 가운데서도 인내하며 라반의 두 딸을 위하여 14년, 양들을 위하여 6년, 모두 20년 동안 헌신적으로 외삼촌을 위하여 봉사하였습니다. 그러나 라반은 야곱의 품값을 열번이나 변경하며 그를 괴롭혔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때가 되어 하나님은 야곱을 공수(空手)로 돌려보내지 않으셨습니다. 분노의 추격자도 잠잠케 되었습니다.

낮의 해도, 밤의 달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을 결코 해할 수 없음을 봅니다. 이것이 시련 중에서도 은총을 바라보는 신앙인에게 평생토록 따르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입니다.

▶ 기도 / 어려운 위기의 때에 잘 극복하고 승리할 지혜를 더하소서. 교회의 모든 위원회가 주님의 뜻을 따라 맡은 바 모든 일에 책임을 다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령님은 누구신가 (금) 10

찬송 / 169장 본문 / 고전 2:10-14

『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2:10)

성령님이 누구신가를 잘 알고 있는 성도는 그리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성령님을 한 인격체로, 삼위 중에 한 분으로 인정하기 보다는 능력, 은사로만 취급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성령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으로서 인격을 가지신 분이시며, 단순한 어떤 힘이나 에너지가 아니라 지, 정, 의를 가지신 분으로 믿어야 합니다.

성경에 보면 성령은 영원하시고(히 9:14), 전능하시며(눅 1:35), 이디에나 계시고(시 139:7) 전지하신 창조주이십니다(창 1:2). 예수님의 경우를 보면 그는 성령으로 태어나시고,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셨습니다. 구약에는 성령께서 특별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누구 위에 임하셨다가 그 일이 끝나면 떠나십니다. 그러나 오순절 이후에는 누구 안에 성령께서 오시고, 일단 온 뒤에는 함께 거하실 뿐만 아니라 구원의 사역에 직접 간여하십니다. 따라서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고 고백할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습니다. 성령의 사역은 신자 안에서 내재하실 뿐만 아니라 위로, 인도, 돌보심, 이적과 믿음을 갖게 하십니다. 지금도 성령은 우리의 심령을 감찰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신령한 일을 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의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러므로 오늘의 우리들은 성령을 떠나서는 믿을 수도 없고 선교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도 없습니다. 이제부터는 내 마음대로 인생의 여정을 살지 말고 우리의 생각과 사정을 다 알고 계신 성령님을 의뢰하면서 그의 인도하심대로 믿고 순종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시다.

▶ 기도 / 성령님에 대한 바른 지식을 가지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사는 구역이 되게 하소서. 성령의 역사하심을 체험하는 참된 예배를 드리는 충현교회가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1 (토) 미스바 언약

찬송 / 463 장　본문 / 창 31:43-55

『그들에게 축복하고 떠나 고향으로 돌아갔더라』(31:55)

매우 극적인 인간심리의 변화가 본문에 나타나 있습니다. 야곱이 몰래 떠났다는 소식과 가정의 수호신인 드라빔까지 없어졌다는 말에 보복을 결심하고 격분해서 급히 추격했던 라반이 길르앗 산에서 야곱을 만나고서는 마침내 화해의 언약을 맺었습니다. 곧 미스바의 언약입니다. 이 배경에는 기약없이 자기 딸들을 머나먼 곳으로 떠나 보내면서 장인이 사위에게 부탁할 수 있는 인간 본연의 부성애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폭발적이었던 라반의 분노가 이토록 바뀔 수가 있었을까요?

그것은 무엇보다 자기 언약의 백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영원한 은혜에 기인합니다. 이러한 은총은 일찌기 아브라함에게 축복의 근원이 될지라고 언약되었던 것입니다. 복의 근원인 그를 축복하는 사람을 하나님도 축복하시고, 그를 저주하는 사람을 하나님도 저주하십니다. 일찌기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갔을 때 그 가정의 심각한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께서 바로의 집에 경고하심으로 어려움을 넘기기도 하였습니다. 이같이 라반에게도 하나님께서 밤에 현몽하여 야곱을 위협하지 못하도록 막으신 것입니다.

이와 함께 하나님이 함께하심을 확신한 야곱은 진실되고 반박할 수 없는 항변으로 라반의 입을 막았고 심각한 정면대결로부터 화해의 국면으로 변화를 가져오게 하였습니다. 야곱의 구재(口才)가 천냥 빚을 갚은 셈이 되었습니다. 구재는 이같이 때에 따라서 우리와 함께한 형제를 격려할 때나, 혹은 대적자를 제어할 때나 천금같이 요긴하게 쓰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적절한 말은 적극적인 화평을 이루어내는 위력적인 은사입니다.

▶ 기도 / 대적자를 만날 때 주께서 우리 편이 되어주시고 변박당하지 않는 구재로 승리하게 하소서. 교회학교 교사들이 경건의 능력을 갖추어 그들의 삶을 통해 학생들이 변화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생존을 위한 전략 (주일) 12

찬송 / 502 장 본문 / 창 32:1-12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32:7)

외삼촌 라반의 추격을 벗어난 야곱 일행에게는 더 크고 중한 위기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곧 형 에서의 진노서린 보복이었습니다. 야곱은 그 형 에서와 함께 거할 때부터 이미 고난의 밭에 들어서고 있었습니다. 특히 그 형과 해결되지 못한 구원(舊怨)의 문제는 야곱의 내면 깊숙한 곳에 두려움으로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넓은 강을 겨우 건넌 야곱에게 이젠 험한 태산이 가로막은 것입니다. 에서는 이때 강력한 전투력을 갖춘 한 부족의 족장으로 군사 400명을 거느리고서 화해가 아닌, 야곱에게 보복하겠다는 선전포고를 분명히 하고 나타났습니다. 이 때 야곱의 마음은 심히 두렵고 답답하였다 하였습니다.

이 시련의 절정기에 야곱은 장엄한 결심을 품고 에서를 맞을 준비에 들어갑니다. 첫째로 야곱은 필요한 모든 인간적인 조치를 지혜롭게 강구합니다. 당시 유목민들의 위기대처 방법으로서 따르는 사람과 가축을 두 그룹으로 나누어서 한 쪽이 공격을 받아도 다른 쪽은 피할 수 있도록 최악의 경우를 대비하였습니다. 둘째로 구원의 하나님께 기도한 것입니다. 야곱은 은총과 진리로 함께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면서 마음의 두려움을 진솔하게 아뢰며 간구하였습니다. 어려울 때 기도할 수 있는 것은 믿음의 기도자만이 가질 수 있는 특권이며, 연단과 훈련을 통해 얻는 은혜의 수단입니다.

어려울 때 기도할 수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 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하신 말씀은 변치 않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생활 속에 심히 답답함이 있습니까? 야곱이 하나님께 의지하며 기도했던 것같이 기도하는 하루가 됩시다.

▶ 기도 / 어려운 일 당할 때 침착할 수 있는 지혜와 엎드릴 수 있는 믿음을 주소서. 각 교구모임이 더욱 활성화 되도록 성령이 함께 하셔서 주님의 사랑을 이웃에 증거할 수 있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3 (월) 브니엘 사건

찬송 / 337 장 본문 / 창 32:13-32

?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32:26)

아직도 고난 중에 있는 야곱의 마음은 쉴 수가 없었습니다. 형 에서의 칼든 팔은 시시각각 다가오고 있는데 일행의 무리를 분산시켜 피해를 줄인다든지, 혹은 형의 자비에 호소할 수 밖에는 달리 아무 도리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성도가 안팎으로 가장 약할 그 때가 가장 강한 때입니다. 바울도 이 진리를 분명히 체득하고 우리에게 기록해 주었습니다(고후12:10). 많은 믿음의 선진들은 그들이 약할 때나 위기의 순간에 큰 일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모세는 홍해를 앞둔 위기의 순간에 바다를 갈랐고, 개혁자 루터는 로마교의 교권이 그의 전신을 짓눌러 왔을 때 오히려 담대함을 얻어 유럽의 종교를 개혁할 수 있었습니다. 위기란 곧 기회입니다. 부정적인 시선에는 위기로 보이는 것이 믿음으로 볼 때는 기회가 됩니다.

야곱이 이 위기의 때에 한 일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형 에서의 진노를 풀기 위해 정성스런 예물을 앞세운 것입니다. 이런 지혜는 유용합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는 비둘기 같은 순결함과 아울러 뱀같은 지혜도 구비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야곱이 얍복 나루를 건널 때 홀로 남아 고독한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 씨름하면서 기어코 그의 축복을 받아낸 신앙적 노력입니다. 이 씨름의 본질은 확실히 기도와 간구입니다(26절). 하나님의 은총을 절실히 구하면서 그의 축복을 받고야 말겠다는 비장한 각오는 마침내 사태를 바꾸어놓았습니다. 야곱의 연단은 결코 무의미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지혜롭고 신중한 최선의 상황대처와 축복을 위한 비장한 기도, 이는 야곱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연단 중에 얻을 고귀한 영적 보화입니다.

▶ 기도 / 우리에게 다가오는 연단을 통해 지혜와 기도의 능을 얻게 하소서. 남녀전도회가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강하고 담대한 주님의 용사로 서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게 있는 것이 족하오니 (화) 14

찬송 / 404장 본문 / 창 33:1-20

『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나의 소유도 족하오니 …… 』(33:11)

얍복강에서의 놀라운 **체험**은 야곱의 신앙을 한 **단계 높은** 경지로 **올라서게 했습니다. 그후** 야곱은 **평**생의 짐이었던 형 에서**를 만나게 됩**니다. **그 만남**은 하나님의 **은혜로 무사**히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이 만남에서 두 사람의 말 중에서 특**별한 공통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즉 '내게 있는 것이 **족하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두 사람의 고백의 차이점은 완전히 다른 것이었습니다.

에서의 자족함은 하나님없는 물질적 풍요로움이었습니다. 야곱의 자족함에는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그의 물질은 그의 피와 땀 그리고 하나님의 손길이 묻어있는 **귀중**한 증거였습니다. 그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라는 증거였습니**다.** 에서는 '내게 있는 것이 족하니' 라고 하였고, 야곱은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나의 소유도 족하오니' 라고 하였**습**니다.

만족할 줄 안다는 것은 신앙인이 물질에 대하여 갖게 되는 귀중한 변화의 **모습입니다**. 그 만족의 근거는 바로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을 소유했다는 자각에서 시작됩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자족함**을 배울 때 비로서 우리는 물질에 대하여 **자유를** 쟁취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오직 하나님이 자신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하**였습니다**(시 **23**:1). 소유가 많음이 인생을 **만족**케 한다는 생각을 **수정**해야 하겠습니다. "**저희**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의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눅 12:15)

▶ 기도 / 물질, 소유, 풍요, 돈에 대한 나의 생각이 변화되게 하소서. 사랑부와 에바다부원들이 주님의 변함없는 신실한 사랑을 기억하며 기쁨으로 찬양하며 살아가게 하소서.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5 (수) 할례와 학살

찬송 / 423장　본문 / 창 34:1-31

『 그런즉 이같이 하면 너희에게 허락하리라 만일 너희 중 …… 』(34:15,16)

34장에서 야곱은 평생에 있어서 가장 수치로운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의 딸은 세겜에게 강간을 당하고, 그의 아들들은 누이의 복수를 위해 계략을 써서 그 부족을 학살하고, 아울러서 노략질을 한 것입니다. 야곱은 이 일로 인하여 당연히 겪게 될 일들을 생각하면서 큰 근심에 빠지게 됩니다. 곧 근처의 족속들이 연합하여 이 일에 복수를 하려 할 것이고 그 결과 자신과 가문은 멸망을 면치 못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복수를 금하고 있습니다.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롬 12:19) 내가 원수를 갚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는 불신앙적 사고방식에서 출발합니다.

이스라엘은 혈연적 공동체라기 보다는 신앙적 공동체였던 것입니다. 야곱의 아들들은 세겜족속들에게 할례를 받아서 한 민족이 되자고 요구하였습니다. 세겜족속은 자신들 나름대로의 전략에 따라 할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할례라는 선민의 표식이 이제 학살과 음모의 구실로 전락해 버린 것입니다.

우리는 종교, 의식, 법이라는 것이 인간의 의도와 생각에 따라 어떻게 변질될 수 있는가를 분명히 보게 됩니다. 그 귀하고 아름다운 계명들은 얼마든지 모욕될 수 있고 사리사욕에 따라 유용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본질적으로 거듭나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지 못한다면 아무리 훌륭한 제도와 은혜로운 말씀도 오히려 자신을 해치고 이웃을 괴롭게 할 가능성은 언제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언행은 언제나 변화된 새로운 심령에 따라 자제되고 제갈 먹여져야 할 것입니다.

▶ 기도 / 우리의 심령이 언제나 맑고 정결하게 하시어 주의 법을 바르게 지키게 하소서. 우리 교회가 더욱 깨어서 전 세계의 민족과 열방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벧엘로 떠나기 전 (목) 16

찬송 / 444장 본문 / 창 35:1-29

『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벧엘로 올라가서 …… 』(35:1)

34장에 기록된 야곱 가문의 놀라운 범죄의 이유는 무엇일까요? 만약 우리가 동일한 상황에 처했다면 그 사건 자체 때문에 다른 생각을 할 여유가 없었을 것입니다. 야곱도 그러했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은 야곱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얍복의 체험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아직도 온전히 성화되지 못하였고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는 형 에서와의 문제가 원만히 해결되자 곧 헤이해져버렸습니다. 그가 갈 곳은 벧엘이며, 거기서 했던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는 것이었지만 그는 세겜땅에 정착하려 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겜 사건을 통하여 다시 야곱을 이끄셨습니다. 즉 야곱을 벧엘로 보내려 하셨던 것은 첫사랑을 회복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제야 야곱은 제대로 첫걸음을 시작합니다. 자신과 가족 모두에게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청결을 명령한 것입니다. 야곱의 가족에게는 이방신상들, 점치는 기구들(귀에 있는 고리란 점치는 도구였음)이 암암리에 존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우리가 잃어버린 하나님을 다시 만나기 위해서는 이방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케 하고 의복을 바꾸는 영적, 도덕적 결단과 방향전환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가정은 어떠합니까? 혹시 우리 가정에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을 섬기거나 세속적인 것들을 추구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우리가 벧엘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분명한 선언, 분명한 포기가 필요합니다. 벧엘에서의 약속을 지킨 후 하나님은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9-13절의 언약을 복으로 주셨습니다.

▶ 기도 / 우리 가정, 모든 식구들이 온전히 믿음으로 하나가 되게 하소서. 서만수 선교사(인도네시아)의 사역을 통해 더욱 많은 현지인들이 주님 품으로 돌아오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7 (금) 성령과 성경의 관계성

찬 송 / 506장　본문 / 요 16:5-15

[7]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음이니라 (16:14)

성경은 인간의 문학작품이나 역사서가 아니라 성령의 감동감화하심으로 기록된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딤후 3:16). 성경은 하나님의 생기로 이루어진 완전무결한 성령의 산물이기 때문에 성경의 진정한 저자는 성령이십니다. 어떤 사람들은 주장하기를 성경안에는 사람의 말도 있고, 사단의 말도 있고, 비합리적인 말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인간의 이성의 잣대로 재려고 하는 시도이며, 성경의 권위를 무시하는 잘못된 견해입니다. 우리는 성경의 권위를 인정해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이며, 성령의 역사하심을 인정하는 믿음의 태도입니다.

또한 성령은 성경을 읽는 자의 마음을 밝히시고, 그 중심을 열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법의 기이한 것을 보게 하소서"(시 119:18)라고 기도한 시편 기자처럼 항상 성령을 의뢰하는 믿음의 삶이 있어야 합니다. 성령께서는 진리의 영이시며,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며, 진리를 온전히 깨달을 수 있도록 보혜사의 역할을 하십니다. 끝으로 중요한 것은 성령께서는 지금도 성경을 사용하여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성경의 진리를 어긋나게 극단적인 신비주의로 인도하지 않으시고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말씀을 도구로 하여 새로운 역사와 이적을 일으키십니다. 우리는 항상 말씀보다 앞서지도 말고 말씀과 함께 사는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삶의 지혜요, 성도의 마땅한 삶의 도리입니다.

▶ 기도 / 성경을 부지런히 읽어 1년에 한번 이상 통독하는 구역원이 되게 하소서. 성령의 통치와 인도함을 받아 승리하는 선교사, 교사, 구역장, 구역이 되게 하소서. 육호기 선교사(독일)의 사역을 통해 기독교 문화가 독일에 뿌리내리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에 돔 (토) 18

찬송 / 305장 본문 / 창 36:1-43

"에서가 자기 아내들과 자기 자녀들과 자기 집의 모든 사람과 ……"(36:6,7)

36장에 나오는 계보의 의미를 알기 위해서는 '두 민족이 네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는 창세기 25장 23절의 예언을 이해해야 합니다. 에서의 후손은 세일산에 정착하여 에돔 족속이라는 큰 민족을 형성합니다. 야곱과의 상봉 후 에서는 따로 가족을 이끌고 세일산으로 이주합니다. 표면적인 이유는 두 사람의 재산이 너무 많았고 식솔들이 많았으며 그로 인해 목초지가 부족하였기 때문이기도 했지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에돔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생각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이 두 민족간의 적대감은 그들의 출생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기질의 차이, 외모와 추구하는 이상의 차이 등에서 이들은 결합되지 않는 물과 기름의 관계였습니다. 거기다가 장자권의 탈취라는 사건이 더해 졌습니다. 비록 33장에서 이 형제의 화해 장면이 언급되기는 하지만 그들의 적개심은 자손 대대로 이어져 갔습니다. 이들의 역사는 단순한 형제간의 불화나 민족간의 다툼의 한계를 넘어 진리와 불법, 빛과 어두움, 신앙인과 불신앙인의 갈등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이런 대립과 갈등의 역사가 민족과 국가, 사회, 가정에서도 있을 수 있음을 우리는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는 택자와 불택자, 신자와 불신자, 신앙과 불신앙, 빛과 어둠이라는 어쩔수 없는 고통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모든 갈등과 싸움의 궁극적 승리는 하나님의 편에 속한 진리와 빛의 수호자들에게 있게 될 것임을 분명히 믿어야 하겠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요 16:33)

▶ 기도 / 성도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며 겪게 되는 모든 갈등을 인내로서 감당케 하소서. 이준교 선교사(이집트)의 애굽복음주의신학교 사역을 도우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9 (주일) 질 투

찬송 / 338장　본문 / 창 37:1-17

『 그 형들이 아비가 형제들보다 그를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 』(37:4)

요셉은 애굽으로 팔려가야만 합니다. 그것은 장차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이라는 놀라운 구속사적 사건을 경험해야 하는 일에 필수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본문은 그 서론적 배경을 기술합니다. 어떻게 요셉은 애굽으로 팔려 갈 수가 있었는가? 그것은 바로 에서와 야곱의 반목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일에 한 방편이었듯이 요셉과 다른 형제 사이의 시기와 질투라는 요소였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는 요셉은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고 팔려버리게 되었습니다. 부모는 모든 자녀들에게 공평해야 합니다. 편애가 가정에 미치는 해악은 야곱의 가문을 통하여 극명히 배웠습니다. 편애를 받는 자녀는 독선과 아집에 사로 잡히며 소외된 자녀들은 그 소외의 원인이 편애하는 형제에게 있다고 여기게 되어 형제간의 화목은 불가능케 되어 버립니다. 아울러 우리는 시기, 질투, 미움이라는 감정에 대하여 심각히 생각하여야 하겠습니다. 이 감정은 바로 가인으로 하여금 동생을 살해하도록 한 바로 그것입니다. 성도의 양심과 신앙을 좀먹는 것은 외부로부터의 핍박이나 환난일 때도 있지만 그보다는 더 자주 바로 자신의 내부에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남을 향해 비판, 비난, 험담, 모욕을 하고 싶을 때 진지하게 그 이유를 반성해야 합니다. 대부분 그런 적개심의 원인이 바로 자신의 감정, 즉 질투, 시기, 미움에 있음으로 조금만 정직히 자신을 본다면 쉽게 발견할 것입니다.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엡 4:27)는 말씀을 바로 나 자신을 향해 쉴 사이 없이 들려주어야 하겠습니다.

▶ 기도 / 질투, 시기, 미움의 감정에 빠지지 않도록 지켜 주소서. 김주경 선교사(이스라엘)의 사역을 도우시고 성지연구소 사역이 더욱 활성화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환난 가운데 도우시는 하나님 (월) 20

찬송 / 463장 본문 / 창 37:18-36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매 그 형들이 요셉의 옷 곧 그 입은 채색옷을 ……』(37:23)

본문은 요셉이 형들에게 붙들려 미디안 사람들에게 종으로 팔리우는 내용입니다. 형들이 들에서 양을 치고 있을 때에 요셉은 아버지의 심부름을 가게 되었습니다. 이 때에 형들은 멀리서 요셉이 오는 것을 보고 죽이기를 공모하였습니다. 그러나 맏형 르우벤은 죽이기를 만류하여 구덩이에 넣자고 했으며, 이어서 유다는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아넘길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요셉은 애굽까지 팔려갔습니다.

요셉에게 이 사건은 너무도 큰 시련이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고향 가족을 떠나는 것은 물론이고, 형들이 자기를 죽이려 했고 종으로 팔아넘겼다는 사실은 용서할 수 없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는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큰 민족을 이루어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와야 했는데, 이 역할을 수행할 사람이 요셉이었습니다.

우리는 당장 눈 앞에 일어나는 현상만 보고 자신의 장래를 단정짓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시고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지금의 어려움이 나중에 큰 유익이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롬 8:28)고 했습니다. 요셉은 나중에 형제들을 만난 자리에서 '나를 이리로 보낸 자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창 45:8)고 고백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쩔 수 없이 환난 가운데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무한한 지혜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 참 믿음입니다.

▶ 기도 / 아픔의 늪에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만을 굳게 믿고 인내하게 하소서. 안석렬 선교사(수리남)가 진행하는 현지인 성경공부가 더욱 부흥되게 하시고 이를 통해 수리남 복음화가 더욱 앞당겨지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1 (화) 부끄러운 인생을 경계하자

찬송 / 212장 본문 / 창 38:1-30

[F] 유다가 가로되 그로 그것을 가지게 두라 우리가 부끄러움을 …… (38:23)

본문은 유다 가족에 있었던 부끄러운 생의 모습을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유다가 가나안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여 세 아들, 엘과 오난 그리고 셀라를 낳았습니다. 맏아들 엘이 다말이라는 여인과 결혼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죄악을 이유로 자식이 없던 엘을 죽였습니다. 당시 형이 죽으면 동생이 형수를 취해야 했습니다. 둘째 오난은 자식을 낳아도 자기 자식이 안될 줄 알고 잠자리를 회피하다가 하나님께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에 아버지 유다는 며느리 다말에게 수절을 시키고 막내 셀라가 장성할 때까지 기다리게 했습니다. 마침내 막내 셀라가 결혼할 나이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 조치가 없자 다말은 기생처럼 꾸며서 시아버지인 유다를 유혹했습니다. 결국 유다는 창피를 당하게 되었고, 이 가정은 불륜의 흔적을 지니게 되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부끄러운 인생의 한 모습입니다. 악한 죄악으로 인하여 두 아들의 죽음, 기생을 찾아간 유다, 그리고 다말의 잘못된 방법은 사람이 얼마나 연약한 자인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이와 유사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로 섬기며 거룩하게 살아갈 생각을 하지 않는다면, 사람의 타락한 본성과 비도덕적 사회 풍조는 더 악해질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롬12:2)고 했습니다. 우리 인생은 하나님 앞에 다 기록으로 남을 것입니다. 부끄러운 인생이 되지 않도록 경계를 받으며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 기도 / 거룩한 지혜를 주셔서 항상 정결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하소서. 김은태 선교사(중국)의 광주, 심천에서의 사역이 결실을 맺게 하시고 언어 훈련의 진보도 허락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 (수) 22

성경 / 창 39:1-23 찬송 / 465장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39:3)

본문은 요셉이 애굽에 팔려가 종살이 할 때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능력을 인정받고 경건하게 생활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셉은 애굽의 시위대장 집에 팔려갔습니다. 그런데 그 주인은 요셉에게서 두 가지를 보았습니다. 하나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는 것이었고, 다른 하나는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주인 보디발은 요셉에게 집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으므로 요셉이 하는 그 집의 일이 더욱 형통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에게 시험이 찾아왔습니다. 주인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했습니다. 요셉은 사람에게 한 나쁜 짓이 곧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이라고 말하면서 그 유혹을 이겨냈습니다. 그 결과 오해를 받아 감옥에 갇히고 말았습니다.

본문은 우리에게 두 가지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 그 자신은 물론 함께 있는 사람들까지 축복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께 죄를 짓지 않으려고 정직하게 사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오해를 받아 억울한 피해를 보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잘 보이면 이 세상에서 항상 잘 되어야 한다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늘 그런 것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성장을 위한 연단이 있을 수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복음의 고난도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우리의 모든 길을 다 여호와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 기도 / 하나님을 의지하여 거룩한 삶을 살게 하시고 악한 유혹에서 자신을 지켜 승리하게 하소서. 유병세 평신도선교사(일본)를 통해 일본에 뿌려진 복음의 씨앗이 열매를 맺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3 (목) 해석은 하나님께 있으니

찬송 / 410장　본문 / 창 40:1-23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 』(40:8)

본문은 요셉과 함께 감옥에 갇힌 두 관원의 꿈이 요셉이 해석한 대로 되었다는 내용입니다.

애굽의 바로왕에게 수종들던 두 사람, 즉 술 맡은 자와 떡 맡은 자가 잘못을 범하여 투옥되었다가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그 두 사람을 수종들던 요셉은 그들의 꿈을 해석해주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심을 굳게 믿었던 것입니다. 과연 그 해석대로 한 사람은 복직되었고, 다른 한 사람은 죽임을 당했습니다.

꿈을 왜 꾸게 되는지는 분명하지 않습니다. 평소 자신이 많이 생각하던 것이 꿈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기 위한 수단으로 꿈을 꾸게 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꿈이 의미하는 바는 바로 알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런 점에서 요셉은 특별한 은혜를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해석이 하나님께 있다는 고백으로 미루어보아 믿음의 사람임에 틀림없었습니다. 즉 하나님이 원하시면 꿈 해석을 알려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어디에 있든지 자신이 처해있는 상황에 집착하기 보다 요셉처럼 하나님의 임재를 더 의식해야 합니다. 요셉은 억울하게 감옥에 있으면서도 자신의 신앙을 잘 관리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렇게나 살고 있는 사람에게 갑자기 신령한 지혜를 주시기보다 평소에 꾸준히 하나님을 경외하며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는 사람에게 역사하십니다. 요셉의 경건생활은 물론 요셉을 특별히 사랑하신 하나님의 인도가 우리 가족들에게 늘 함께 하기를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 기도 / 적소적시에 하나님으로부터 필요한 지혜와 능력을 공급받으며 살아가게 하소서. 김형선 평신도선교사(뉴질랜드)의 문서선교, 외항선교가 결실을 맺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금) 성령과 구원의 관계성 24

찬송 / 179장 본문 / 요 3:1-8

『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 』(3:5)

역사적으로 지금 우리 시대만큼 변화가 극심한 때도 없을 것입니다. 과학과 기술은 첨단적으로 하루가 멀게 발달하고 있지만 인간의 도덕성, 영적인 신앙의 수준은 오히려 퇴보하고 있는 기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과학자, 철학자, 정치가 등 모두가 이구동성으로 인간의 심성의 변화, 인간 개조가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지만 과학이나 공학이 인간을 근본적으로 개조할 수 없다는 것이 결론입니다. 이것은 오직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면 인간을 새로운 피조물로 개조하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5절) 즉 성령의 역사하심이 없으면 구원의 길이 열려지지 않으며, 하나님께 나아갈 수도 없다는 것이 성경의 교훈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의 말씀대로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의 광채가 비취지 못하게 함이니 즉 사단이 죄악의 먹구름으로 마음이 혼미케 되고,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취지 못하게 만듭니다. 오직 성령만이 영적인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실 수 있습니다.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사건을 우리 각 개인에게 적용시켜서 새로운 영적인 존재로 거듭나게 하십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영혼의 눈이 밝아지면서 죄를 책망하시는 성령의 음성을 듣게 되고,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받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 기도 / 죽어가는 이웃을 구원하여 구역모임이 크게 활성화 되게 하소서. 사회속에 있는 각종 부정과 부패를 척결할 수 있는 김영삼 대통령과 한국교회가 되게 하소서. 이기성 평신도선교사(호주)에게 성령충만으로 복음 증거의 사역을 잘 감당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5 (토) 위로 부터 오는 지혜

찬송 / 479장　본문 / 창 41:1-45

「바로가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같이 하나님의 신에 감동한 …… 」(41:38)

본문은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는 내용입니다. 애굽왕 바로가 꿈을 꾸고 해석하기 위해 고민하고 있을 때에, 감옥에서 요셉의 도움을 받았던 술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추천하였습니다. 바로의 꿈을 듣기 전에 요셉은 또 다시 꿈의 해석이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로에게 평안한 대답을 하시리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굳게 믿었습니다. 그리고 일곱 암소와 일곱 곡식에 대한 꿈을 해석하였습니다. 요셉은 그 꿈의 내용이 애굽에 임할 7년의 풍년과 7년의 흉년이며, 같은 꿈을 두번 꾼 것은 하나님이 이를 작정하셨다는 것과, 더 나아가 어떻게 흉년에 대비책을 세워야 한다는 정책 자문까지 해주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특별한 지혜가 요셉과 함께 한 것입니다. 그 결과 바로는 요셉을 하나님의 신에 감동한 사람, 명철하고 지혜있는 자라 인정하여 자신의 인장을 빼어주면서 치리자로 삼았습니다.

이 사건은 순식간에 일어난 일로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오래 전부터 준비시키신 것이었습니다. 요셉을 애굽의 노예로 팔리우게 하시고, 시위대장의 집에서 종노릇하다가 투옥되어 왕의 관원을 만나게 되었으며, 마침내 바로 왕을 만나 이 자리에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중에도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단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더욱 하나님을 사랑하며 최선을 다하여 그 분을 섬기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자가 땅을 차지합니다. 그 지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주시는 위로 부터 오는 지혜입니다(약 3:17). 우리 가정에 항상 하나님의 지혜가 넘치기를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 기도 / 위로부터 오는 지혜를 받을 수 있는 믿음을 더하소서. 고은빈 평신도선교사(케냐)가 전개하는 맛사이족 선교사역이 결실을 맺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가 이르는 대로 하라 (주일) 26

찬송 / 316장 본문 / 창41:46-57

? …… 그가 너희에게 이르는 대로 하라 하니라 .(41:55)

기근은 애굽 뿐만이 아니라 애굽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에까지 확산되어 지상 모든 거민들이 기근을 면하기 위하여 곡식이 있는 애굽으로 몰려들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요셉은 굶어 죽어가는 사람들을 먹여 살리는 구원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였습니다. 사람들은 살기 위하여 육적인 양식은 물론 영적인 양식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육적인 양식의 기근에는 민감하면서 영적 양식의 기근에는 무디어져 있습니다.

기근 해결을 위하여 애굽을 찾아간 사람들을 바로는 요셉에게 보내면서 "그가 너희에게 이르는 대로 하라" 하였습니다. 가나 혼인 잔치에서 포도주가 없어 쩔쩔매는 하인들에게 마리아가 "그가 너희에게 이르는대로 하라" 한 말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순종해야 하였습니다. 믿고 순종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요셉은 그당시 기근에 빠진 사람들의 배를 채워줄 수 있었고, 예수님께서는 영적 기근에 빠진 사람들의 영혼을 채워 주십니다. 사람들은 살기 위하여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와야만 합니다. 애굽에 심각한 흉년이 들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요셉이라는 택한 사람을 통하여 애굽 사람만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의 사람까지도 살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나타내는 요셉을 통하여 가르쳐주시는 것은, 우리들이 살 수 있는 오직 한 길은 생명의 떡이시며, 생수의 근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에게 이르는 대로 하여야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양식을 공급받아 영과 육이 강건하여지며 풍성한 삶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 기도 / 영의 양식되신 예수께 순종함으로 영과 육이 풍성한 삶을 살게 하소서. 김철영 평신도선교사(일본)가 오사까영광교회와의 협력 선교를 잘 이루어가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7 (월)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찬송 / 313장 본문 / 창 42:1-25

『 그리하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 하리라 』(42:2)

야곱이 살고 있는 가나안 땅에도 흉년이 들어 다 굶어 죽게 되었습니다. 우리들의 심령과 교회에도 때로 영적 흉년에 빠져 그대로 있으면 죽게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들에게 사랑의 흉년, 감사의 흉년, 기쁨의 흉년, 열매의 흉년이 있지나 않은지 분별하는 눈이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때에 야곱의 아들들처럼 서로 관망만 하고 있어서는 안됩니다.

야곱의 아들들은 애굽에 가면 양식이 있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지 않고 요셉이 있는 애굽으로 양식을 찾아 나서지 않는 그들은 육적으로 영적으로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생명을 살리는 양식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람 요셉이 있는 곳에는 먹을 양식이 풍성하였고, 요셉이 없는 가나안 땅에는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모신 교회나 개인은 영의 양식이 풍족하고 은혜가 충만하지만, 예수님이 떠난 교회는 은혜의 양식에 기근이 듭니다.

요셉의 창고는 모든 사람을 먹여 살릴 수 있도록 예비된 창고이며, 나눠주는 창고였습니다. 예수님을 모시고 있는 개인의 심령이나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로 풍족하여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은혜와 사랑을 나눠줄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살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가 풍족하신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백성들에게 생명의 양식을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것을 믿고 길과 생명되신 예수님께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 기도 / 사랑의 기근 중에 있는 세상에서 생명의 양식이신 예수님께 나아와 풍성한 말씀과 은혜를 공급받게 하소서. 김영대 선교사(중동권)에게 언어의 진보를 허락하시고 모슬렘권 복음화에 초석이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어찌하여 (화) 28

찬송 / 332장 본문 / 창 42:26-38

『하나님이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 일을 행하셨는고』(42:28)

야곱의 아들들은 시므온을 애굽에 볼모로 남겨놓고 무거운 마음으로 가나안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돌아오면서 곡식 자루 속에서 그들이 지불한 돈이 그대로 나오자 더욱더 두려웠습니다. 자신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이 과거의 잘못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면서 과거 자신들이 동생 요셉에게 저지른 죄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기 시작하였습니다. 형제들은 동생을 돈을 받고 노예로 팔아넘기고 아버지를 속인 큰 죄악을 저질렀었습니다. 요셉이 실제로 죽지 않고 살아 있다고 해서 동생을 팔아 먹은 형들의 죄가 용서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인간은 자신이 저지른 범죄에 대하여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하며 참다운 회개와 용서가 없이는 죄에 대한 무거운 책임에서 놓임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참다운 회개와 용서는 어떻게 가능합니까? 죄의 용서함을 받기 위해 필요한 것은 먼저 자신들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요셉은 형제들의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시험을 형제들에게 치렀고 어려움을 주었습니다. 이제 형제들은 서서히 자신들의 잠자던 영혼 속에서 "하나님이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 일을 행하셨는고" 말하면서 자신들의 죄를 뉘우치게 됩니다. 죄에 대한 회개가 있은 후에는 죄에 대한 피흘림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만이 죄를 근본적으로 씻어줄 수 있습니다(히 9:12, 28). 예수님께서는 죄인들을 대신하여 그 죄값을 담당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들도 부닥치는 어려움이 있읍니까? 어려움을 통하여 죄를 **깨닫고 주님의 보혈을** 통해 죄의 용서를 받아야 하겠습니다.

▶ 기도 / 어려움을 만날 때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주님의 보혈을 통하여 용서받게 하소서. 길림성기독교신학원 설립이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하루속히 이루어지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9 (수) 내가 그의 몸을 담보하오리니

찬송 / 351장 본문 / 창 43:1-15

? 내가 그의 몸을 담보하오리니 ;(43:9)

요셉이 형제들을 알아보고도 곧바로 자신을 나타내지 않은 이유는 무엇이었겠습니까? 요셉이 원하였던 것은 형제들이 새사람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형제들간에 시기 질투하면 남보다도 못하며 아무 것도 이룰 수가 없다는 것을 요셉은 형제들에게 깨닫게 하여 주고 싶었습니다. 그것이 시므온을 인질로 남게 하고, 베냐민을 데리고 오도록 시킨 요셉의 마음입니다.

르우벤은 아버지 야곱에게 만일 자신이 베냐민을 데려오지 못하면 자신의 두 아들을 죽이라고 까지 하였습니다. 유다는 말하기를, "내가 그의 몸을 담보하오리니" 라고 하였습니다. 담보라는 말은 보증, 대신이라는 뜻입니다. 유다가 자신의 몸을 베냐민 대신 드리겠다는 말입니다. 유다의 이 말은 자신을 다른 사람 대신 제공하겠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사람을 대신하여 제공된다는 것은 역사상 처음 등장하는 말이며 야곱은 이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은 애굽 방문을 통하여 형제간에 서로를 위한 사랑이 크게 성장하였습니다. 모든 형제들은 하나인 것을 인식하고 서로 책임을 지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담보가 되시어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의 죄에 대한 대속물로 십자가의 죽음을 죽으셨습니다. "내가 그의 몸을 담보하오리니"라는 말을 하였던 유다에게는 후에 큰 축복이 주어졌습니다. 아버지 이스라엘을 통하여 큰 축복의 기도를 받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다 족속으로 태어나시는 큰 축복을 받았습니다.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가슴 깊이 감사하며 우리들도 자기 희생의 사랑을 실천하여야 겠습니다.

▶ 기도 / 자기 희생의 사랑을 주신 예수님께 감사하며, 희생을 통하여 이웃을 사랑하게 하소서. 대통령을 비롯한 모든 정치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정치에 임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집으로 인도해 들이고 (목) 30

찬송 / 278장 본문 / 창 43:16-34

? 집으로 인도해 들이고 짐승을 잡고 준비하라 』(43:16)

요셉은 형제들에게 죄를 깨닫게 하고 그들로 하나님과 자신과 아버지 야곱에게 참다운 용서를 받고, 요셉 자신과 참다운 화해를 할 수 있도록 이들의 마음을 살피보면서 끝까지 기다리며 자신의 감정을 나타내지 않았습니다.

형들에 의하여 노예로 팔려 애굽에 왔던 요셉은 저지른 잘못을 참으로 회개하고 있는지를 알기 위하여 형들이 베냐민에게 어떻게 하는지를 살펴보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형들에게 베냐민을 데려오라고 명령을 내렸던 것입니다. 시므온을 인질로 애굽에 남겨놓고, 베냐민을 데려오기 위해서 가나안으로 돌아가는 이들은 힘든 과정을 겪으면서 자신들이 과거 동생에게 저지른 죄에 대한 깊은 탄식과 회개를 하였을 것이며, 형제에 대한 책임과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뼈저리게 배울 수 있었을 것입니다.

마침내 자신들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형제에 대한 책임을 깊이 인식하며 돌아온 이들을 요셉은 크게 환대하였습니다. 우리들이 모든 잘못을 뉘우치고 주님 앞에 진정 회개하는 마음으로 나아올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천국잔치에 참여하도록 인도하여 주십니다. 우리들은 요셉을 통하여 하나님께 대하여 저지른 죄악을 회개하며 우리에게 있는 베냐민과 같은 형제와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며 돌볼 책임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께서 회개하고 돌아온 우리들을 위하여 베풀어 주실 한없는 축복의 천국잔치에 함께 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 기도 / 주님을 배반하고 살았던 우리들의 죄악을 회개하며 베냐민과 같은 우리들의 어린 형제들을 내 몸처럼 사랑하게 하소서. 농어촌교회가 성령충만하게 하시고 지역사회에 봉사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31 (금) 성령의 세례란 무엇인가

찬송 / 173장　본문 / 행 1:1-8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1:5)

세례는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앙고백이요, 하나님과 연합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공적인 선언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세례의 양태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물세례요 다른 하나는 성령의 세례입니다. 이 물세례와 성령세례는 그 순서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물세례를 받을 때 동시에 성령세례를 받을 때도 있고, 물세례를 먼저 받고 얼마 지난 뒤에 성령의 세례를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반대로 성령세례를 받고 나중에 물세례를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따지고 보면 이 둘은 서로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행 2:38) 다시 말하면 물세례와 성령세례는 서로 긴밀한 연결성을 가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성령의 세례를 받을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즉 중생과 성령세례는 동일한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성령을 받기 위하여 고민하고 몸부림치는 모습을 가끔 봅니다. 이것은 중생할 때 성령을 받는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성령세례를 받아도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확신하지 못함으로 능력없는 삶을 삽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를 구주로 믿을 때 성령의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미 예수를 믿을 때에 성령세례를 받았다는 사실을 확신하고 더 나아가 성령충만함을 위해 기도하고 성화의 삶을 사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 기도 / 성령님에 관한 바른 이해가 열려지며, 성령의 부어주심이 온 구역원들에게 임하게 하소서. 3월에도 함께 하신 하나님, 4월에도 동행하셔서 순종의 꽃을 피우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구역예배공과

구역예배순서

찬　송 ..... 다같이
성경봉독 ..... 사회자와 교독
구역공과 ..... 인도자
기　도 ..... 인도자
주기도문 ..... 다같이

▶ 구역예배 소요시간은 최소한 40분 정도가 적합합니다. 인도자의 지도에 따라서 최선을 다할 때 은혜가 넘치는 구역예배가 될 것입니다.

제 21 과

구원의 최종 단계인 영화

본 문 : 빌립보 4장 17-21절
요 절 : 빌립보 4장 21절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찬 송 : 25장, 142장

1. 서 론

영화란 구원의 모든 과정이 완성되는 단계를 말합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롬 8:30) 나를 하나님의 원하시는 수준까지 성장시키고, 영화롭게 만드시는 것은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성도의 영화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소극적인 단계로서 죄의 세력과 부패로부터 해방되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적극적인 단계로서 천국의 영원한 행복에 들어가는 것을 말하며, 천국에서 예수님처럼 온전히 영화로운 몸으로 변형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언제 영화롭게 됩니까? 성도가 죽을 때에 그 영혼은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즉각적으로 죄의 세력에서 완전히 해방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영원한 행복을 누리게 됩니다. 따라서 첫번째 영화는 죽을 때에 옵니다. 그러나 육체은 무덤에 남아 잠자고 있다가 예수님이 천사장의 나팔소리와 함께 재림하실 때에 부활하여 썩지 아니하는 몸, 즉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하여 영광스러운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살전 4:13-18).

2. 본문 해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나의 몸과 발은 이 세상을 떠나서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두 영역에서 수많은 고민과 갈등을 안고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영화로운 구원의 영역은 인간의 과학이나 기술로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이루어집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의 소망이 무엇일까요? 바로 썩은 육체가 영화로운 몸으로 부활하는 그 날, 주님께서 천사장의 나팔소리와 함께 이 땅에 재림하시는 그 날을 사모합니다. 그 날에 이루어질 영광스러운 몸은 시간과 공간의 지배를 받지 않습니다. 현재의 우리의 육체는 이 땅에서 살기에 알맞도록 만들어진 몸이기 때문에 천국에서는 부적합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육체는 천국에서 살기에 알맞도록 만들어져야 합니다. 그 몸은 바로 영화롭게 부활된 거룩한 육체입니다. 우리가 기억할 것은 구원의 최종 단계에 주어지는 영광스러운 부활은 이 세상의 그 어떤 영광과도 비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환난 중에도 이 영광스러운 부활을 소망으로 삼고 날마다 기쁨으로 살아가는 성도가 됩시다.

3. 본문 관찰

1) 주의 재림을 사모하며 믿음으로 살고 있는 빌립보 성도들에게 바울은 무엇을 하라고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습니까(17절)?

_____

_____

2)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비록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습니까(20절)?

_____

_____

3) 만물을 그의 뜻대로 복종케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어떤 몸의 형체로 변케 하시리라고 했습니까(21절)?

_____

_____

4)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좇아 강림하시리니 누구 안에서 죽은 자가 먼저 일어납니까(살전 4:16)?

_____

_____

4. 삶의 적용

1) 주의 재림으로 우리의 썩을 육체가 영화로운 몸으로 부활할 것을 믿는다면 나의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를 나누며, 이 기쁜 소식을 이웃에게 전하는 사역에 전심전력을 다 합시다.

2)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임을 한 시라도 잊어버리지 말고,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성도답게 생활을 합시다. 새로운 생활에 대한 나의 결심과 각오를 함께 나누어봅시다.

▶ 기 도

충현의 성도들이 주의 재림과 더불어 영화로운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날마다 살아가게 하소서. 이 복음을 중심으로 구역 모임이 활성화되게 하소서.

제 22 과

성령님은 누구신가

본 문 : 고린도전서 2장 10-14절
요 절 : 고린도전서 2장 10절
『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
찬 송 : 34장, 169장

1. 서 론

하나님의 양자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분을 획득하는 것이고, 성화는 그 신분에 걸맞는 영적인 변화를 말합니다. 우리는 칭의의 결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법적인 신분을 얻게 되지만 육신의 소욕이 금방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아직도 성결치 못한 부분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성결치 못한 부분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씩 없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성화입니다. 구원받은 성도에게 하나님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고 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성화는 도덕적 수련이나 의지에 의해 하나씩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초자연적인 역사와 말씀의 역사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성화의 모델은 바로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고,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성화란 이 땅에서는 완성되지 않으며, 부활 때까지 계속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중생이 영적으로 새로운 탄생이라면 성화는 영적인 성장인 것입니다.

2. 본문 해설

성령은 지금도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해 방황할 때에도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친히 간구하시면서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게 하십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후에도 우리의 마음속에는 아직도 연약함에 쌓여 있고, 죄의 오염의 뿌리가 깊숙히 남아 있습니다. 이 죄 문제를 해결하려면 인간의 도덕이나 결심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좇아 순종할 때에 성화가 내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또한 성화는 로봇트와 같이 만들어 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자유의지를 잘 사용하셔서 즐거운 마음으로 주의 뜻에 헌신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성화는 선행과 긴밀한 연관이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도 선행을 합니다. 어떤 면에서 믿는 신자보다 불신자가 더 많은 선행을 하는 경우도 봅니다. 그러나 그들의 선행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도 아닙니다. 그러므로 세속적인 선행을 성화와 혼돈해서는 안됩니다. 성도의 성화는 반드시 선행의 열매로 나타나야 합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려는 동기,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서의 선행, 자기 중심적인 선행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적인 선행이어야 합니다.

3. 본문 관찰

1)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할 때 누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십니까(26절)?

_____

_____

2)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무엇을 이루게 됩니까(28절)?

3)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그 아들의 무엇을 본받게 하십니까?

4. 삶의 적용

1) 매사에 하나님의 뜻대로 나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하나님을 의뢰하고, 주어진 모든 일에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합시다.

2) 내 구역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행을 이루며, 합력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구역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 기 도

내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는 삶,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성화 가 이루어지게 해주옵시고, 말씀과 기도의 훈련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구역이 되게 하소서.

제 23 과

성령과 성경의 관계성

본 문 : 요한복음 16장 5-15절
성 구 : 요한복음 16장 14절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음이니라』
찬 송 : 50장, 464장

1. 서 론

하나님은 자기의 백성을 어떤 환경과 여건 속에서도 버리지 않으시고 붙잡고 계십니다. 사람은 일시적으로, 실수로 항상 보호해주지 못하고 함께 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으시고 꽉 붙잡아주십니다.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기쁘게 해 드릴 때만 붙잡아주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할 때에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을 때에도 하나님은 택한 자를 영원히 버리지 않으시고 오른손으로 붙잡고 구원해주시는 참 좋으신 분이십니다. 이것을 칼빈은 성도의 견인이라는 말로 정의 하였습니다. 성도의 견인이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사람은 그 분의 효과적인 부르심을 통해 중생하고, 현실적으로 성화에 있어서 퇴보하는 경우도 없지 않지만 궁극적으로 성도들이 영원히 멸망받는 일은 없으며 택함을 받은 사람은 은혜의 상태에 항상 머물러 있다는 말입니다.

2. 본문 해설

우리의 구원 문제는 환경에 따라 순간적으로 변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신앙행위에 관계없이 하나님의 예정에 따라 진행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장로교에서 왜 견인교리를 주장하고 있을까요? 첫째는 선택교리 때문입니다. 둘째는 하나님의 불변한 구속의 언약 때문입니다. 셋째는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와 중보사역 때문입니다. 넷째는 성령의 역사하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다섯째는 구원의 확신, 승리의 확신을 주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소망 가운데 날마다 승리하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때로는 순간적인 퇴보나 실패가 있어도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그의 섭리 속에서 승리로 진행하십니다. 우리가 어떠한 고통과 환란 속에 있다고 할지라도, 현실을 보면 도저히 포기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오른손으로 붙잡고 계신다는 사실만 잊어 버리지 않는다면 결국에는 승리할 것입니다. 불안하고 염려가 내 앞에 엄습해 올 때 조용히 나를 바라보고 붙잡고 계시는 하나님께 나의 시선을 집중하기를 바랍니다. 어떤 환경 속에서도 결코 나를 버리지 않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기를 바랍니다.

3. 본문 관찰

1)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리라고 했습니까(10절) ?

_____

_____

2) 너의 하나님이 네 오른손을 붙들고 네게 이르기를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어떻게 할 것이라고 했습니까(13절)?

3) 내가 너로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 기계를 삼으리니 네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며, 무엇을 쳐서 겨같이 할 것이라고 했습니까(15절)?

4. 삶의 적용

1) 가정에, 직장에 어려운 고민과 갈등이 있으면 함께 기도 제목으로 나누고, 나를 오른손으로 붙잡고 계시는 하나님께 시선을 집중합시다.

2) 95년도에 하나님이 나를 새 타작 기계로 삼아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비전이 넘치는 구역, 내 앞에 닥친 모든 문제를 헤쳐 나가는 구역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구역이 됩시다.

▶ 기 도

어려운 고통과 환란 속에 있는 개인, 가정, 구역, 직장, 사회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오른속으로 붙잡고 계시는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주옵소서.

제 24 과

성령과 구원의 관계성

본 문 : 요한복음 3장 1-8절
요 절 : 요한복음 3장 5절
『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
찬 송 : 14장 , 179장

1. 서 론

역사적으로 지금 우리 시대만큼 변화가 극심한 때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과학과 기술은 첨단적으로 하루가 멀게 발달하고 있지만 인간의 도덕성, 영적인 신앙의 수준은 오히려 퇴보하고 있는 기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과학자, 철학자, 정치가 등 모두가 이구동성으로 인간의 심성의 변화, 인간 개조가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지만 과학이나 공학이 인간을 근본적으로 개조할 수 없다는 것이 결론입니다. 이것은 오직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면 인간을 새로운 피조물로 개조하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5절) 즉 성령의 역사하심이 없으면 구원의 길이 열려지지 않으며, 하나님께 나아갈 수도 없다는 것이 성경의 교훈입니다. 인간의 힘과 노력으로 구원의 길이 열려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려져 있으

며,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구원의 은총이 우리에게 적용되어집니다.

2. 본문 해설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는 인물이 있는데 그는 유대인의 관원이요, 산헤드린의 공회원이요, 유대인의 랍비였습니다. 그는 구원의 문제에 대해 고민하다가 한 밤중에 예수님을 조용히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는 예수님과의 대화를 통하여 자신이 얼마나 영생에 대해서 무지한 줄을 깨닫게 되었고, 자신의 구원은 선행이나 율법을 준수함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큰 비밀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주변에는 21세기의 니고데모와 같은 영적인 문제, 구원에 관해 고민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사람은 자신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상황에 빠질 때 초자연적인 능력을 기대하면서 하나님을 갈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도 없고 만날 수도 없도 무서운 담벽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한 원죄는 우리의 마음의 눈과 영혼의 눈을 어둡게 만들어버렸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의 말씀대로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의 광채가 비취지 못하게 함이니 즉 사단이 죄악의 먹구름으로 마음이 혼미케 되고,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취지 못하게 만듭니다. 오직 성령만이 영적인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실 수 있습니다.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사건을 우리 각 개인에게 적용시켜서 새로운 영적인 존재로 거듭나게 하십니다. 영적으로 중생해야만 마음이 밝아져서 자신이 범한 죄악을 발견하게 됩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영혼의 눈이 밝아지면서 죄를 책망하시는 성령의 음성을 듣게 되고,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받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3. 본문 관찰

1) 밤중에 왜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찾아 왔을까요? 유대인의 관원인 니고데모는 예수께서 누구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을 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까(2절)?

_____

_____

2) 예수님은 영생의 문제에 관해 고민하다가 찾아온 니고데모에게 사람이 거듭 나지 아니하면 무엇을 볼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까(3절)?

_____

_____

3) 거듭남이 무엇인 줄을 깨닫지 못하고 어리둥절해 하는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은 사람이 무엇과 무엇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하셨습니까(5절)?

_____

_____

4) 우리 주변에 이단인 구원파에서는 본인이 언제 성령으로 거듭났는지 영적 출생일을 알지 못하면 다시 예수님을 영접해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과연 자신이 성령으로 언제 거듭났는지 알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8절)?

_____

_____

4. 삶의 적용

1) 나는 예수님이 누구로부터 오신 분으로 고백하고 있습니까? 정말 그 분을 나의 구세주로, 주님으로 믿고 있습니까? 그 고백이 삶으로 어떻게 연결되고 있는지 함께 나누면서 자신의 신앙생활을 점검해봅시다.

2) 내 자신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신자인지, 교회에만 출석하고 있는 교인인지를 점검하며, 내가 거듭난 증거를 함께 나누면서 은혜를 받기를 바랍니다.

▶ 기 도

죽어가는 이웃을 구원하여 구역모임이 크게 활성화 되게 하소서. 사회 속에 있는 각종 부정과 부패를 척결할 수 있는 김영삼 대통령과 한국 교회가 되게 하소서.

제 25 과

성령의 세례란 무엇인가

본 문 : 사도행전 1장 1-8절
요 절 : 사도행전 1장 5절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찬 송 : 28장, 173장

1. 서 론

세례란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앙고백이요, 하나님과 연합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공적인 선언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세례의 양태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물세례요 다른 하나는 성령세례입니다. 이 물세례와 성령세례는 그 순서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물세례를 받을 때 동시에 성령세례를 받을 때도 있고, 물세례를 먼저 받고 얼마 지난 뒤에 성령세례를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반대로 성령세례를 받고 나중에 물세례를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따지고 보면 이 둘은 실로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 아주 잘 언급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다시 말하면 물세례와 성령세례는 서로 긴밀한 연결성을 가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성령세례를 받을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즉 중생과 성령세례는 동일한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성령을 받기 위하여 고민하고 몸부림치는 모습을 가끔 봅니다. 이것은 중생할 때 성령을 받는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어도 사용하지 않고 묻어두면 무능해지듯이 중생할 때 성령세례를 받아도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확신하지 못함으로 능력없는 삶을 삽니

다.

2. 본문 해설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승리하신 예수님은 실의와 좌절에 빠져 있는 제자들에게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중요성과 그의 나라를 위한 사역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새 힘을 얻은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복음을 들고 나가서 전파할 것을 명하시지 않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는 놀라운 소식을 전해주셨습니다. 성령세례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핵심이며, 성령의 권능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했다는 객관적인 증거입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2000년 전에 오순절 강림사건은 이미 약속의 성취대로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였습니다. 또한 그 약속의 성취대로 우리는 이미 예수를 구주로 믿을 때 성령세례를 받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미 예수를 믿을 때에 성령세례를 받았다는 사실을 확신하고 더 나아가 성령충만함을 위해 기도하고 성화의 삶을 사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제 우리는 성령의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주님의 증인이 되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명령을 순종하는 마음으로 가족 복음화와 지역 복음화에 힘쓰시는 구역원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3. 본문 관찰

1)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40일 동안 저희에게 보이시며 무엇에 관한 일을 말씀하셨습니까(3절)?

_____

_____

2)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했는데 그 약속한 것이 무엇인지를 기록하십시오(5절).

3)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무엇이 되리라고 했습니까(8절)?

4. 삶의 적용

1) 예수님을 다 버리고 도망간 제자들을 저버리지 않고 다시 찾아오셔서 저희에게 40일 동안 친히 보이시는 예수님의 사랑과 긍휼을 본받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 위하여 기도하며 전심전력을 다합시다.

2) 우리 구역에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아직 성령세례를 받지 못한 자가 있으면 함께 중보기도 하며, 또한 자신과 가족과 구역의 성령충만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합시다.

▶ 기 도

성령님에 관한 바른 이해가 열려지며, 성령의 부어주심이 온 구역원들에게 임하게 하소서. 원로목사님과 당회장 목사님의 가정과 사역에 큰 축복을 내려주옵소서.

MEMO

가정예배 안내

▣예배순서

1) 찬　　송 ..... 다 같 이
2) 성경봉독 ..... 사 회 자
3) 메시지 낭독
4) 기　　도 ..... 다 같 이
5) 주 기 도 ..... 다 같 이

- **예배 소요시간**
  약 15분 내외가 적합

- **예배 사회자**
  가장 또는 가족이 돌아가면서 순번제로 인도

- **찬송과 성경 본문**
  가정예배 안내서의 해당 일자에 소개된 찬송을 부르고, 성경 본문을 봉독

충현의 만나 · 1995년 3월호 · 발행인/신성종 · 편집인/우기전
발행처/충현교회 출판부 · 등록번호/제9-110호(1977. 10. 21)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665-1 · 전화/552-8200 [비매품]